

고진영, 세계 랭킹 1위 예약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4년 만에 韓선수 한해 메이저 2승



고진영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LPGA 에비앙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로 김효주 등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미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고진영(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8일(한국시간) LPGA 에비앙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친 고

진영은 김효주(24)와 핑산산(중국), 제니퍼 컵초(미국) 등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2개째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다.

고진영은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또 3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까지 더해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은 선수가 됐다.

아울러 2015년 박인비(31)가 PGA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한해에 메이저 2승을 일궈낸 선수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은 물론, 상금 1위 또한 고진영에게 돌아간다.

상금 61만5000달러(약 7억2000만원)를 받아 시즌 상금 188만382달러로 1위가 됐다. 29일자 세계 랭킹에서도 박성현(26)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이미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평균타수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진영은 상금과 세계 랭킹에서도 선두에 나섰다.

한편 박성현은 10언더파로 공동 6위, 박인비는 9언더파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강정호 '최악'...4연타석 삼진에 수비 실책까지

피츠버그, 뉴욕 메츠에 7-8 패해...타율 0.170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플러싱 씨티 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8회 삼진당하고 있다. 강정호는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4삼진으로 침묵해 타율은 1할7푼으로 떨어졌고 팀은 7-8로 패하며 8연패에 빠졌다.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삼진만 4차례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라싱의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

저리그 뉴욕 메츠와 원정 경기에 7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4삼진에 그쳤다.

0-6으로 끌려가던 2회 2사후 맞은 첫 타석에서 메츠 선발 제이슨 바르가스를 상대해 3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1-6으로 밀린 4회 1사 1루에서도 다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6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9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였지만, 결과는 헛스윙 삼진이다. 8회 1사 1루에서는 바뀐 투수 지스틴 윌슨에 헛스윙 삼진으로 고개를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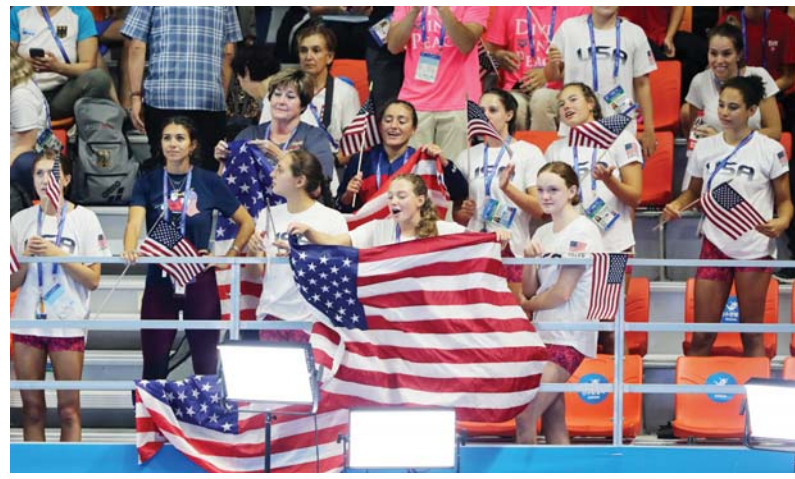
네 타석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연신 방망이를 휘둘린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74에서 0.170로 떨어졌다.

수비에서도 실책을 했다. 0-5로 뒤진 1회 1사 1, 2루에서 바르가스의 타구를 잡은 투수 크리스 아처가 3루로 공을 뿌렸다. 강정호가 포구를 하지 못하면서 실책이 기록됐다.

한편, 피츠버그는 7-8로 패했다. 8연패에 빠지며 시즌 46승5패가 됐다. 4연승을 이어간 메츠는 시즌 50승55패를 거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무리

메달사냥 양극화... '톱5' 58% · 노메달 168개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7일 간의 열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가별 메달 수확량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뚜렷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1973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첫 세계선수권을 개최한 이후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까지 역대 세계선수권 6개 전체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차지한 국가는 미국이며 248개로 독보적이다.

이어 독일(89개), 중국(83개), 러시아(76개), 호주(75개) 등이 '수영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메달사냥의 양극화와 강호들의 독식 현상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금메달 76개를 포함해 전체 230개 메달의 주인공이 모두 가려진 가운데 단 하나의 메달이라도 획득한 국가는 단 25개국으로, 전체 참가국 194개국 중 12.9%에 그쳤다. 10개국 중 한 나라꼴로 메달을 나눠 갖는 사이 90%에 육박하는 참가국은 동메달 구경도 못한 셈이다.

최소 1개 이상 메달을 딴 나라는 2017년 29개국, 2015년 30개국,

2013년 31개국, 2011년 28개국, 2009년 30개국, 2007년 27개국, 2005년 26개국, 2003년 28개국, 2001년 24개국, 1998년과 1994년 21개국이다. 1991년까지는 10여 개국에 그쳤으나 이후 20개국을 넘겼다.

금 기준 1위 중국 · 2위 미국

3위 러...총메달 美 36개 최다

'톱5' 전체 메달 58% 싹쓸이

또 중에서 일만 금메달 수확

한국, 銅 1개 '다이빙 첫 쾌거'

개최국 대한민국은 공동 최하위다. 개막 이틀날,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김수지 선수가 동메달을 딴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메달이었다. 한국다이빙 사상 처음이자 박

태환 이후 8년 만에 나온 세계선수권 메달로, '개최국 노메달' 수모를 일찌감치 덜어내는 깜짝 쾌거였다.

금메달로 범위를 좁히면 14개국으로 전체 참가국의 7.2%에 불과하다.

28일 밤 9시56분 대회 마지막 경기인 여자 400m 계영까지, 주인을 찾은 메달은 모두 230개. 금메달이 76개, 은메달이 77개, 동메달이 77개다.

메달 순위(금메달수 기준)는 중국이 16개로 1위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5개와 12개로 2, 3위를 차지했다. 호주 7개, 헝가리 5개, 이탈리아 4개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금 21개로 중국을 9개차로 누르고 사실상 우승했으나 이번엔 '수영 여제' 레데키의 부진으로 동력을 잃었다.

금·은·동 합치면 월드컵 미국이 36개로 1위, 중국과 러시아가 30개씩으로 공동 2위다. 총메달 30개를 넘긴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다. 호주가 23개, 이탈리아가 15개, 영국이 11개로 뒤를 이었다. 톱5가 전체 메달의 41.7%인 96개의 메달을, 톱5로 넓히면 58.2%를 싹쓸이했다. 10개 이상 두 자릿수 메달국은 8개국에 그쳤다.

한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그리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와 더불어 '은리원 메달' 8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1개 이상의 메달을 뒀고, 금메달은 중국과 일본만 목에 걸었다. 차기 개최국 일본은 2년 전 노골드의 수모를 털고, 2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화 송은범↔LG 신정락, 맞트레이드 단행

베테랑 투수 송은범(35)이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는다.

LG는 28일 "신정락(32)을 한화 이글스에 내주고, 송은범을 데려오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2003년 1차 지명으로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송은범은 2013년 KIA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됐고, 2015년 자유계약선수(FA)로 한화로 이적했다. 통산 534경기에 등판, 79승87패40홀드 25세이브 평균자책점 4.59를 수확했다. 올해는 37경기에 나와 승리없이 3패4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5.14를 올렸

다.

채명석 LG 단장은 "송은범은 큰 경기 경험이 많은 투수로 팀 마운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완 사이드암인 신정락은 2010년 LG 1차 지명으로 입단, 8시즌 동안 212경기 17승22패24홀드 10세이브를 기록했다. 올 시즌 성적은 23경기 1승 1패4홀드 평균자책점 9.47.

한화는 "팀 내 부족한 사이드 유형 영입으로 볼펜 다양성을 통한 전력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의 길로 우리
Road to Nature, Gurye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미골, 회연사, 설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선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